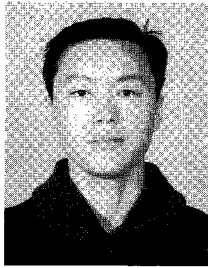


류코사이토준병 (Leucocyto- zoonosis)



김 광 호
(과학사료 기획부 과장)

올 해는 엘니뇨 현상에 의한 기온이변으로 무더운 날씨만큼이나 국제통화기금 여파로 생산비 상승마저 겹쳐 무척이나 우리의 양축농가를 짜증스럽게 하고 있다. 또한 벌써

장마가 왔나 싶을 정도로 하루가 멀다하고 비가오고 있다. 이러한 고온다습한 기온이 계속 되면서 호흡기질병 등 많은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 모기의 대량번식에 알맞은 환경을 조성하여 여러 원충성 질병을 야기시키고 있다. 그중 늦은 봄부터 여름에 발생하여 양계농가에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닭의 류코사이토준병에 대해서 이 기회에 정리하고자 한다.

1. 류코사이토준병이란?

본 병은 주혈 포자충류에 속하는 류코사이토준이라는 원충이 닭겨모기의 침샘에 모여 있다. 닭겨모기가 닭을 흡혈할 때 닭의 혈액내로 감염되어 발생한다. 또한 닭겨모기가 감염된 닭으로부터 흡혈할 때 류코사이토준 원충이 모기침샘내로 들어와 다시 정상 닭을 흡혈 할 때 전파된다.

닭의 혈액내에 감염된 류코사이토원충은 심장, 폐, 간, 비장, 근육 등에서 증식하면서 장기조직을 파괴시켜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물론 적혈구나 백혈구에서 기생함으로써 심한 빈혈과 출혈, 체중감소, 사료섭취량감소, 기형란생산, 폐사 등을 초래하는 전염성 질병이다.

본병은 닭겨모기가 발생하는 시기인 6월 이후부터 닭에 발생되기 시작하여 9월말까지 나타나며 10월 이후에는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지금부터가 예방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발병은 모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모기가 많은 양계장이나, 여름철 정기적인 살충을 하지 않는 양계장에서는 어디서나 발생할 가능

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계사 내외부의 소독과 살충 등 본 병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2. 국내의 발생

국내에서는 1987년부터 피리메타민(Pyrimethamine) 제제를 사료에 첨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이래 88년에 경기, 충청, 영남 지역의 산란양계장에 대규모로 발생되어 산란저하, 폐사를 초래하여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국내에는 양계규모가 그동안 비교적 작았기 때문에 발생규모가 작았지만 최근에는 양계단지 조성 등 규모의 대형화로 폭발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최근에는 영남지역과 호남지역에서 주기적인 발생보고가 있다 한다.

금년에는 이상고온과 다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5월 이후에는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며 양계장 주변소독, 살충 등 본 병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3. 증상 및 진단요령

닭겨모기로부터 원충이 감염된 어린병아리는 객혈을 하면서 갑자기 폐사하는 등 감수성과 폐사율이 높으며, 성계에서의 폐사율은 그다지 높지 않지만 산란율이 20% 이상 저하되며 녹색변을 보이고 빈혈로 인해 눈주위와 벼슬이 창백해 보인다.

심한 경우는 출혈, 객혈, 식욕절폐, 기형란의 산란, 산란중지를 초래하며 폐사하게 된다. 해



닭겨모기

부학적인 소견으로는 근육, 간, 폐, 심장, 신장, 수관관 등 실질장기에 출혈점이 산재해 있고 심한 경우에는 복강출혈과 복막염을 동반하게 된다.

이때 산란저하, 객혈 등의 증상과 관련하여 산란저하증후군, 전염성기관지염, 뉴캐슬병 등과 감별진단에 유의하여야 하며 닭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 빈혈과 녹색변의 배설 및 약간의 산란감소가 보이면 도 가축위생시험소나 양계전문 수의사에 의뢰하여 현미경 검사로 적혈구내 류코사이토준의 증식 여부를 관찰함과 동시에 부검을 실시하여 각 장기의 상태를 관찰, 확정하여야 한다.

4. 예방 및 대책

본 병의 중간숙주는 닭겨모기이다. 그러므로 닭겨모기를 박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먼저 수행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살충력이 있는 소독제로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곳은 계사 내외부를 막론하고 철저히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한 두 번으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필히 정기적인 소독 작

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양계단지 등에서는 같은 시기에 공동으로 소독작업이 이루어져야 효과적이며 양계장 내 곤충유인 등을 같이 설치하면서 소독작업을 실시하면 더욱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까지 본 병에 대하여 효과적인 약제는 설파모노메톡신(Sulfamonomethoxine)과 오르메토프림(Ormethoprim), 설파디메톡신(sulfadimethoxine), 클로피돌(Clopidol)이 있으며 이들 약제들은 육계 후기사료, 산란계의 경우 큰병아리 사료까지 배합사료에 첨가할 수 있으므로 첫 여름을 맞이하는 닭에는 효과적인 예방요법이 될 것이다.

성계의 경우는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설파모노메톡신과 오르메토프림 또는 설파디메톡신을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2~3주일 간격으로 2~

3일간 2회 정도 투여하면 초기감염을 예방하는 동시에 일부 잔류 원충에 의한 자연면역을 유도하여 내과하게 된다.

임상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병계치료는 전문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설파디메톡신 또는 설파모노메톡신과 오르메토프림 등을 7일간 연속 투여한다.

이러한 약물요법이 쉽게 증세를 감소시킬 수는 있으나 수란관이 회복되어 산란율이 정상으로 돌아올때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걸리고 산란율 또한 정상 최고치까지는 올라가지 않으므로 치료보다 예방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올해는 여러모로 힘든 한 해가 되겠지만 본 병에 대한 철저한 예방대책을 세워 류코사이토준병이 발병하지 않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양계**

빠른 양계 정보 제공 안내

주간 양계속보

-주간위 양계관련 최신 정보-

계란, 육계, 병아리, 노계가격, 주간 배합사료 생산실적, 금후 양계산물 가격 주간위 전망 등

구독료 : (연간) 60,000원

난가 변동 FAX통보

-데이콤 메일 400, 팩스로 자동 수신-

수도권 지역 난가 변동시 당일 오전 중 발송, 전국 난가 및 전망사료 수시 송부

이용료 : 연간 누구나 100,000원

* 구독이나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사)대한양계협회(02)588-7651로 직접 문의하시거나, 온라인 농협 097-01-000953로 송금후, 전화연락 바람. 예금주 대한양계협회